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頁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基道(?)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初等學校敎員의臨時補充策

一

當局에서는 新年度에 全道에서 所要되는 普通學校敎員이 新設、擴張 及 退職關係에 依한 退職及 簡易學校의 新設로써 約千餘人에 及하나 三師範學校出身及 前年度卒業生의 休職敎員等을 合처도 不過 六百名에 達하지못하므로 補充策으로서

(一) 甲種農業學校卒業生及
(二) 高等普通學校卒業生中優秀한者를 選拔하야 六個月이란 短期間의 講習을 시켜 前者는 農村普通學校에, 後者는 都市普通學校에 配定하는 同時에

(三) 專門、大學卒業生으로 中等敎員을 志願한者中 希望者를 銓衡하야 普校敎員으로 充當하는 一方

(四) 各道에서 每年 一回式 施行하든 第三種 普校敎員試驗을 三回나 施行하야 그 不足人員을 充當하리라 한다。

二

就職難에 헤매이는 이 朝鮮에 卒業生의 하나도 쉬일 자리가 업고 休職中의 敎員까지 끌어내어도 오히려 四百名의 敎員이 不足하다는것은 딴 方面에선 볼수업는 奇現象이거니와 이 奇現象은 應急的으로 處置하라는 當局의 態度에도 좀더 愼重한바가 잇서야할것이다。普通學校敎員으로서 師範學校 高等普通學校 農業學校等 中等學校卒業生을 採用하는것은 不得已한 事情일지나 此等 中等校卒業生으로서 不過 六個月이란 短期間에 普校敎員을 養成한다하는것은 너무 拙速한 方法이 아닐가。

그러치안어도 朝鮮의 初等學校敎員 素質은 一般으로 低下하다는 것이 定評이다。到處에서 普通敎員의 不品行事件이 續出하는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것이 아니랴。

보라。過去 普校敎員의 不足을 當時 各道에 師範學校를 두어 普校卒業生 으로서 一年 乃至 三年의 敎育을 밧고 곳 普校敎員이 되어간 例가 一、二年間이 아니엇으니 그런 敎員의 素質이 얼마나 朝鮮 初等敎育에 影響을 주엇으랴。

三

무릇 初等敎育처럼 人民敎育中 重要한것은 업다。普校卒業만으로 社會에 나가거나 上級學校에 가거나 基本되는 智識은 普校에서 밧나니 이 初等敎育이 不徹底하다하면 그 社會全體에 惡影響을 줄것이 틀림업다。各國이 모다 初等敎育을 六年乃至 九年으로 하고 또 人民의 義務로써 시키는것은 初等敎育이 얼마나 人民生活에 重大한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랴。日本서 師範敎育改善案을 作成할도 오즉이 이때문이다。

四

그러므로 當局에서는 方今 計劃하고잇는 二年制의 簡易學校도 不必要한것은 아니나 初等敎育의 完全을 期하기위하야 一律로 六年制의 學校로 定하는 同時에 어떤 期間을 作定하야 義務敎育을 實行할것을 言明하고 또 今年에 實施할 初等敎員의 補充도 假定敎員을 採用치말고 中等校卒業生으로써 師範學校에서 一年의 新敎育을 밧든지 하고 三種敎員이란것은 現在以上 더 增加시키지말고 專門以上의 卒業生中에서라도 이것을 採用하는것이 마땅할것이다

獨逸나치스

墺國政府를威嚇

一週間의猶豫를宣告코 나치스政策採用을慫慂

伯林에서突然放送

【聯合伯林十九日發】 墺太利社會民主黨의 內亂以來 沈默을 固守하고잇든 獨逸나치스는 十九日에 이르러 俄然 그 對墺政策을 宣明하고 獨特한 나치스의 威嚇言辭로써 독푸스政府가 나치스政策을 採用하기를 慫慂하엿다 即墺太利의나치스는 돌푸스政府倒壞運動을 行하엿다는 嫌疑로 昨年末 墺太利로부터 逐放된 하프히트氏는 十九日伯林放送協會로부터 墺太利에 對하야 放送하야 曰

余는 墺太利의 나치스團에 對하야 돌푸스首相에게 나치스政府와 同一한길을 取케하기 爲하야 今後一週間 墺太利政府에 對한 攻擊을 停止하기를 命하엿다 萬一 右手續을 取하지 안을時 나치스의 反政府行動은 二十八日을 期하야 再開될터이다 (寫眞은 히틀러)

蘇中不可侵條約 締結機運漸濃厚

顏惠慶、羅文幹等이積極運動

【南京發】 一時에는 一瀉千里로 締結되리라고 떠들든 蘇中不可侵條約交涉은 그後消息이 全然끈친대로 今日에 이르럿든바 駐蘇中國大使顏惠慶氏의 歸國으로 同交涉問題는 再次話題에 오르게되엿다 最近中國側消息에 依하면 蘇聯大使館에서는 蘇中不可侵條約은 目下兩國政府間에 文書로써 意見을 交換하면서 雙方에서 右에 對하여 研究하여오든바 모도 研究가 終了되엿슴으로 交涉이 開始되게되엿다고 한다 또一說에 依하면 中國側은 不可侵條約中 『蘇聯邦은 滿洲國을 承認함을 不得함』『中國內에서 共產主義宣傳乃至共產主義團體를 援助함을 不得한다』는 條項을 附揷入하엿다고 한다 또 一說에는 羅文幹顏惠慶氏等은 極力同條約締結을 急히하고잇는대 政府部內에는 共產黨討伐이 어느程度까지에는 同條約을 締結하드라도 實際上利益이 업슬뿐더러 對外的으로도 滋味업다는 反響이 이러나 意外에 禍根을 作하리라는 論을 主張하는 者도 不少하다 이러한 纏綿가 同交涉을 遲延케한다는 說도 잇스나 近日 南中視察途上에 오를 蘇大使보고 모로프氏가 旅行을 맛치고 歸還한後에 徐徐히 交涉이 進捗되리라고 하는바 느저도 今年秋期에는 交涉이 實現될 모양이다

『스다비스키』의最後와 『반데룹베』의死刑

佛獨犯罪二大雙曲線

佛國의 바이요大疑獄事件과 獨逸의 國會議事堂放火事件은 그 質에 잇서서 달럿스나 全世界의 注目을 集中한 近來의 大事件으로 이미 本紙에 屢次詳報되바잇섯거니와 이 事件을 惹起한 中心人物인 바이요疑獄事件의 張本人 스타비스키와 國會議事堂放火犯으로 라입치히 大審院에서 死刑의 言渡를 밧은 和蘭共產主義者 반데룹베는 悲慘한 最後를 마친點과 特히 그 兩者가 事實의 眞相을 明白히하지 못하고 依然 兩事件의 『수수꺽기』를 現世에 남긴데잇서서 共通되는것은 奇怪한 運命이엇다。即寫眞右圖內가 바이욘의 公營質屋의 詐欺事件의 張本人으로、巴里市民에게 五億法以上의 損害를 與하고、延하야는 달리미어 植民相을 이事件에 關聯식힌으로 달라듸에 內閣의 總辭職과 이에서는 大革命以來의 過激의 巴里大暴動까지에 發展케하는 直接動機를 맨든、稀世의 大詐欺師、알렉산더•서지•스타비스키이다。스타비스키는 佛國警察의 猛烈한 搜索網을 巧妙히 脫出하야、七八個月間을 避身하야 다니든곳에 去一月八日 몬•부랑의 山下『사목』이라는곳의 사람안 사는집에서 慘殺된屍體가되여 搜索警官隊에게 發見되엿는데 이것이도리혀 疑獄事件을 더 神秘的으로 重大化하게하야 警察은 自殺이라고 發表하얏스나 一般市民은 그가 그와가치 오래 警察의손에 逮捕되지안은것은 巴里警視總監압페와의 關係가 잇기때문이라는등 그가 逮捕되여 法網에 걸니게되면 關係되大官의 醜狀이 連續擴大되여 暴露될터임으로 證據湮滅의 必要로 結局은 일부러 殺害하얏다는등——그의 慘死가 發表되자 巴里市는 물끌듯이 『압페總監을 投獄하여라』『腐敗한 政治를 打倒하여라』고 외치면서、드데여 過般 巴里大暴動까지에、發展케된것이다。스타비스키는 키에프出生의 白系露人으로써 前科五犯이나 巧妙히 法官을 籠絡하야 언제든지、保釋과 執行猶豫만으로 一貫하얏다는 名詐欺漢이엿다。그리고 그가 特히 그러케까지 惡德을 行한데잇서서는 才色兼備한 그夫人을 巧妙히 操縱하야왓다는데 一層 探偵的興味가 잇섯다。右寫眞이 即美人計의 役割을 맛헛든 巴里의 有名한 美人 스타비스키夫人이다

◇寫眞左는 라입치히大審院에서 死刑言渡를 밧고 憂鬱한 數週를 지내다가 去一月十日 라입치히監獄의 死刑臺에서、나치스獨特한 中古的斧刑으로 死刑臺의 이슬이된 自稱和蘭共產主義者 반데룹베(二十三歲)가 憮然히 끼로친臺로 끌니워가는 光景이다。이리하야 全世界의 實驗한 非難聲中에 前後十餘箇月을 끄러오든 獨逸國會議事堂放火事件은 도글러等 共產黨員의 所謂赤色革命의 信號로써 行한것은 아니이라는 裁決이된셈이나 반데룹베는 精神病者로 스스로 放火한 나치스의 謀略의 犧牲이되엿다는등……眞僞한 世界輿論은 依然히 明言키를 拒否하고잇다 (만체스터 가디엔紙에依한)

齋藤首相 今週中登院不能

【電通東京電話】 輕微의 咽喉가다루로 四谷의 私邸에서 靜養中의 齋藤首相은 十九日에至하야 持病의 루마치스를 倂發하야 醫師로부터 三日間의 絶對安靜이 必要하다고 말이잇섯슴으로 今週中은 首相의 登院不可能으로 본다

政府大同團結派

明夜에公公然하게集會

【聯合東京電話】 政友會幹部가 最近에 이르러 純正한意味의 大同團結運動이라고 하면 此에 反對치안케다는 意思를 表明하게되엿다는것은 政友會內의 大同團結運動의 今後進展을 暗示하는것이라고하야 注目되여잇고 더욱 이運動은 表面的으로 拍車를 加하게 될것이라고 觀測되는바 大同團結派에는 二十日 黨幹部와 黨員에 對하야 招待狀을 發하고 廿一日午後五時 芝三緣亭에서 有志가 會合하게 되엿스는대 同夜는 凡百名以上의 參會者가 잇스리라고 稱한다

政府糾彈에加拍車

不信任案提出決定

國同、緊急動議로提出乎

【電通東京電話】 國民同盟에서는 二十日午後本會議에 臨하기前에 同黨代議士會를 開催하고 協議한結果 二十日本會議에서 質問이 끗나는것을 보아 不信任案上程에 關한 緊急動議를 提出하나 清瀨一郎氏가 이러한 動議의 趣旨辯明과 不信任提出理由를 說述하고 對政府糾彈의 氣勢를 擧하게되엿다

貴族院研究會 緊急常務委員會

【電通東京電話】 貴族院에서는 二十日午前九時半院內控室에서 緊急常務委員會를 開催하고 時局問題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一、鐵道疑獄中改正法律案은 今議會에잇서 重要한 法案임으로 十八名의 特別委員에게 附託하도록 二十日正午부터 院內에서 開催한 各派交涉會에 提議할것

一、貴族院豫算總會는 連日續行하고잇는대 委員側의 熱心한 質問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大臣以下政府委員의 出席이 자못 怠慢하고 더욱 齋藤首相의 病으로因한 缺席으로 重要質問者는 齋藤首相에 對한 質問은 首相出席까지 保留되여잇는 現狀으로 議事進行上 非常한 支障을 招來하여잇고 首相은 아직 一週間은 靜養을 要하게되어 豫算總會終了後三日間 豫算總會에서는 到底히 滿足한 質問應答은 不可能한故로 此際適當한 處置를 講究하도록 各派交涉會에 提議할것

右에 意見一致되여 十時散會하엿다

樺工事件書類를

議長手許에提出

查問會는廿三日에再開

【聯合東京電話】 問題의 衆議院의 查問委員會는 二十二日 그 第三回를 開하기로 되엇는바 十九日의 查問委員會席上 國民同盟의 清瀨一郎氏로부터 政府에 參考資料로서 提出을 要求한 樺太工業社長 藤田好三郎氏의 背任橫領事件에 關한 一件書類에 對하야 二十日의 閣議에서 愼重協議한 結果 事件을 判然케하기 爲하야 이것을 提出하기로 決定하고 秋田議長에게 提出하얏다 이것을 目下 問題의 焦點으로된 鳩山文相에 關聯한 證據湮滅의 件도 明白하게될것으로 보고 ……注目한다

【電通東京電話】 衆議院查問委員會에서 論議의 中心點이 되어잇는 樺太工業藤田好三郎氏와 鳩山文相과의 金錢收受關係證明記錄及附屬書等 一件書類提出에 對하여는 十九日午後 院內關係閣僚會議에서 協議하고 司法省에서 書類를 調査하고잇든바 二十日午後 堀切翰長으로부터 此를 秋田議長에게 提出하엿다 이 一件記錄의 委員會提出로 岡本一己氏의 證言이 眞正한것인지 鳩山文相의말이 眞正한것인지 그問題는 드듸어 白日下에 暴露되여 是非曲直은 드듸어 明白해질것이라 더욱이 鳩山文相의 進退가 決定的일것이라하야 注目되여잇다

總辭職을斷行하면 政局은全然混沌化

文相引退해도그대로버틸듯

政府의態度자못愼重

【電通東京電話】 鳩山文相의 進退에 關하야는 現內閣이 成立以來 文相이 政友會를 代表하야 入閣한 關係上 個人的 立場으로써만으로는 決하기 難處한 事情이며 特히 政友會內部의 紛糾에 對하야는 鈴木總裁直系의 文相一派로서는 자못 愼重한 態度로써 臨할것이라고 要望함으로 查問會에서 潔白을 明白히한後 文相으로서는 將來의 政治的生命을 考慮하야 此際潔白하게 文敎의府로부터 隱退함을 穩當하다고한다 그러나 一方政府에서도 文相問題의 表面化와 共히 事態의 推移에 對하야 各方面의 情報를 蒐集하며 愼重한 考慮를 拂하고 齋藤首相은 病으로 靜養中임에 不拘하고 連日堀切翰長을 招致하야 高橋山本兩長老의 意見을 聽取하야 對策에 腐心하고잇는대 政府首腦部의 一致한 見解로서는 此際에 어데까지든지 愼重한 態度를 取하는 同時에 國家의 大局的見地로는 假使文相이 不得已 辭職한다하드래도 總辭職과 如함은 決코 行치안을것이며 如左한 事情으로 政局의 安定에 邁進할것으로 思惟된다 即

一、對滿洲國政策의 遂行上 또 一九三五、六年의 國際危機를 압두고 政局의 動向은 어데까지 大勢的으로 正視하야 愼重히 行動할것

一、非常時豫算은 이미 衆議院을 通過하고 貴族院도 不過二週間이 남어잇스며 軍部及貴族院에서도 豫算成立을 希望하고잇는것

一、日本의 現下의 情勢로보아 總辭職을 斷行한다면 政局을 全혀 混沌狀態에 드러가게할 憂慮가 充分히 잇스며 後繼內閣이 豫想되지안는 境遇에 內閣을 던지는것은 無責任한것으로 各方面이 모다 此를 避하려는 情勢에 잇는것

남의醜行暴露식히다가 제罪惡까지 자랑하기는 政、民一致!

波蘇兩國의親善은 東歐平和維持의鍵

莫斯科를訪問한波外相演說

【莫斯科十五日發電】 昨日莫斯科에 到着한 波蘭國外相 벡氏一行과 外務省要人及 波蘭記者團代表者의 一行은 聯邦人民委員會長 몰로토프及 리트비노프外相을 訪問하고 長時間會議하엿는데 리트비노프外相은 一行駐莫波蘭大使館員과 쎄베—르外務省要人等을 晝食에 招待하고 會食中에 兩國外相의 辭令을 交換하고 리트비노프氏는 波蘇兩國關係가 不可侵協定及 侵略國定義條約에 依하야 益益親善의 度를 增加하게 되것을 慶賀하고 兩國의 文化的 接近에 벡外相이 多大한 努力이 잇섯다는것을 讚하고 더욱 사베—르平和政策을 高唱하야 波蘇親善이 善隣關係뿐이 아니라 世界平和에 特히 東歐平和에 貢獻함이 多大한것이라고 結論하엿다 此에 對하야 벡外相은 사베—르側의 歡迎을 深謝한後 波蘭政府는 사베—르聯邦과의 國交親善에 多大한 努力을 注하고잇다 兩國間에 締結된 條約은 兩國의 平和關係持續을 可能케하리라고 云云한 容辭를 述하얏다

衆議院本會議(廿日)

交涉會內容暴露코

清瀨氏政府痛擊

微妙한空氣裡에議場大緊張

議長은遂發言을中止

【電通東京電話】 二十日衆議院本會議는 岡本問題에서 發端된 政局動搖 望月總務의 議員辭任 政友會의 分裂氣勢와 意外의 方面에서 發生된 議院內外의 微妙한 空氣의 反映으로 當日의 傍聽席은 開會前부터 立錐의 餘地가 업는 滿員을 이루어 國民同盟의 緊急上程을 企圖한 內閣不信任案은 各派交涉會의 結果 上程이 延期되엿다 今日議事日程에 記入된 議案 其他에는 何等變更이 업스나 議場에는 一脈의 焦燥하고도 不安한 空氣가 떠도라 政友會側의 步調가 맛지안엇다 그리하야 午後二時十四分 秋田議長은 開會를 宣言에뒤니여 嚴然히 이러나 衆議院의 院議로써 白耳義皇帝 알벨陛下의 崩御에 對하야 哀悼하는 뜻을 表하기 바란다고 말한後 哀悼文을 朗讀하고 滿場一致로 此를 可決한다음 議事進行에 關하야 發言을 求하야

清瀨一郎君(國同) 現內閣의 所爲에 不滿한바가 多大하다 더욱 文敎의府에 잇는 關係는 證據湮滅을 하엿다고云云

하자 政友會側은 憤然히 『查問會開會中이안인가』『가만잇거라』고 絶叫하자 秋田議長은 再三注意를 促하엿다 그러나

清瀨君은 조금도 屈치안코 余는 二十三日 皇太子殿下御降誕의 祝賀가 擧行될으로……云云하자 再次 怒罵가 飛한다

清瀨君 그때문에 余가 內閣不信任案을 上程하야 그사람에게 考慮를 促하려한것이나 그것을 多數黨이 支持하야 上程되지 못한것은 國民에 對하야 未安하다

고 交涉會의 內容을 暴露하고 再次 鳩山云云이라고 말을 繼續할으로 秋田議長은 드듸여 清瀨君의 發言을 中止식히자 政友會側으로부터 상놈들을보아라고 떠들자 清瀨君은 무엇이라고 소래치고 降壇(以下夕刊에繼續)

人事•集會

▲吳鳳彬氏(朝鮮美術館主幹) 朝鮮古名畫展開催準備次 二十日夜咸南向發

夕刊後의市況 二十日

東京短期東新

	大引	高値	低値
期近(?)	一七二〇	一七三〇	一七二〇

大阪短期株式

大新	一二九六〇	(二〇高)
鐘紡新	一三二二〇	(不變)
日産	一四一五〇	(四〇低)
東新	一七一八〇	(四〇低)

橫濱生糸

當限	六四〇〇〇	先限	五五〇〇〇

大都市集中抑制코 地方小都市化爲主

農村問題解決要策으로主張

貴族院豫算總會(二十日)

【電通東京電話】 二十日貴族院豫算總會는 午前十時三十八分부터 開會

前田利定子(研究) 齋藤首相이 오래동안 登院치못한다고하면 首相代理를 定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한다

堀切翰長、首相의 病은 아직 全快되지 못하야 今後三日間의 靜養을 要할것이다

前田子 豫算委員會의 審議期間은 決定되여잇슴으로 오래동안 登院할수업스면 豫算審議가 不可能함으로 委員長도 內閣書記官長과 相議하야 審議進行에 適當한 處置를 講究하기 바란다

다음에 坂本俊篤男(公正)이 議事進行에 關하야 發言을 求하야

坂本俊篤男 首相에 對한 質疑는 此處에 잇는 者로써 此를 行하고 後에 速記錄을 首相으로부터 閱讀케하야 그 答辯을 하게하는것이 如何

柳澤委員長 此點은 委員長에게 一任하기를 바란다

內田重成氏(交友) 大都市集中을 抑制하고 地方에 小都市를 만드는것이 農村問題解決의 重要點이라고 생각하는바 農相과 內相의 所見은 如何 今日의 小都市는 넘우 小都市로 到底히 今日과가튼 負擔에는 堪當할수업다 그것을 適當하게 倂合하면 費用으로보든지 또는 能力으로보아 有效하게되야 二重의 負擔도 업서질것이라고 생각한다

山本內相 第一의點에 對하여는 政府에서도 充分考慮하고잇다 第二의 町村合倂에 關하여는 內田氏의 希望에 副하도록 政府에서는 考究하고잇다

內田氏 더욱 敎育問題에 對하야 質問하고 午後零時半 休憩하엿다

政友代議士會

望月氏慰留決定

【電通東京電話】 政友會는 二十日午後一時二十分 院內에서 代議士會를 開催하고 望月總務로부터 議員辭任의 人事가 끗난後 島田總務로부터 望月氏가 今回에 辭任한 精神은 全혀 愛黨精神에서 나온것으로 이 點은 어데까지 服膺하지안으면 안될것이나 議員辭任에 對하여는 極力慰留치안으면 안된다 이 點에 對하야 只今 總務會에서도 어데까지 慰留하기에 最善에 努力을 다하도록 協議하엿다고 報告하고 提議한結果 東座長으로부터 此를 一同에 諮한바 滿場一致로 全黨을 擧하야 望月氏를 慰留하기로 決定하엿다

朝鮮米樂觀不許

議員에阻止運動

外地米統制에 關한 農林省案은 輸出量을 制限하고 特別會計에 依하야 買上할 二種의 法的工作을 行하려하는 形勢에잇슴으로 委員은 目下貴族院議員方面에 阻止運動中이나 樂觀을 許치안음으로 政友系及統制强硬論者에 對하야 更히 一段의 猛運動을 開始하엿다

舶來優良商品 蓄音器なら マイクロホン號 型錄進呈 大阪市東區瓦町小路 丸蓄商店 電話東六二四八番

特許實用新案 シャツ カラー 洋裝附屬品 專門製造 大阪平野町心齋橋筋角 辻市商店 (型錄進呈)

定價 加綿 雜貨 綿布 大阪市浪速區元町五丁目 電車筋 高田吉造商店 電話戎一六八一

ハギレ卸 人絹 モスリン 銘仙 新規小賣開業者 大阪市南區 津村合資會社

牛エリ問屋 大阪市南本町三丁目 勝本久七商店 電話船場一七八三

新案特許 N式 萬年筆 フリー 大阪市西成區北通 中島萬年筆製作所 電話戎五七三七番

製繩機 製菓機 打藁機 特價提供 (カタログ進呈) 電話土佐堀六八二

高級洋服既製品 椿本宗商店 大阪市東區唐物町一丁目 電話本町二〇一三番 振替大阪一〇六五番

春洋服 オーバ ズボン 品揃 現金問屋 中儀商店 地方部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電話東一七二四番 振替大阪四八六一八番

ワイシャツ 和田シャツ製造所 大阪市東區 電話東四九一七 振替大阪八〇二四番

羅紗 セル製品 卸問屋 堀内常商店 大阪市谷町二丁目 電話長東二三四 振替大阪一八六六七

製菓機 製麵機 金儲 五合米が八升に 製粉機 カタログ呈 石橋製作所 大阪市此花區

佛教系兩校에經營難
存廢問題까지擡頭
佛專과普成高普兩校中에서
一校는廢校의悲運

기독교조선감리회에서 경영 하고잇는 학교가 미국선교부의보조비감소로경영곤난상태에빠저 불원간 폐교의운명에 잇는것이 마라는 반갑지못한 소식을전한지 얼마아니되어 다시조선불교측에서 경영하고잇는 두학교가역시경영난으로 말미암아 경영자간에 그존폐문제가 일어나세상의주목을 끌고잇다는섭섭한 소식을 전하게되엇다 즉불교측에서경영하여오든 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專)와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普)는최근에그경영이 마음대로 되지아니 하야 지금와서는 두학교중에서 하나는폐교하여야만 될지경에 이르든것이다

이두학교는 조선불교 중앙교무원(敎務院)에서경영하고잇는데 법인(法人)조직으로된 이교무원의재산총계(總計)는륙십만원이나 사실상 재단(財團)의 재산으로 등록(登錄)된것은 약삼십만원으로 그것도지까(地價)가 빗싼때에 평까한것이고 또 재단을맨들기위하야 재산을 과대히 평까한관계도 잇겟지만 경기조흔때와 경영도다소 방만하엿든바 업지안엇스며 그후에 재산관리도 그리훌륭치 못하여 현재는 재단에서마음대로 할수잇다는 삼십만원의재산에서도 그실은 예기하엿든만큼 조흔수입을 엇지못할 상태에잇다 그러고현재각지사찰(寺刹) 삼십본산(本山)의 총재산은 총액 약륙백만원으로 평까되고 잇는것은 전부각사찰에서 관리하고잇서 그중에서 안분(按分)하야 부담케된교무원납입금(納入金)도 수년래로는납입성적이 조치못한것도 적지안타고 한다 이러한상태에잇서 현재 두학교를경영하는데필요한경비는년액으로 보성고보가약사만원 불교전문이약이만원합륙만원으로그중두학교의 월사금 약이만오천원을 제외하고도 년약삼만오천원이라는 경상비가필요하나 현재 귀본재산으로되어잇는 부동산(不動産)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서는 이것까지 충당되지 안코 그만둘보충되는돈을 변통해내일수는 사실상 어려운일이라 한다 그러면결국 이두학교중에 어느하나는 폐교하거나 다른유지에게 경영을 인계하는수밧게 다른도리가 업다는데 과연이문제는 어떠케결말을 지케될것인가 하는뒤말을당하여 일층 주목을끌고잇다

종래 고려될것이 잇슬것이라는것이다

普成高普를犧牲하고 佛專存續에置念
佛教關係者의意向은그러나 社會側은高普校存續을希望

전긔와가티 조선불교중앙 교무원에서 경영하고잇는 중앙불교전문학교와 보성고등보통학교가경영곤난에 빠지어결국 두곳중에서 하나은 폐교하거나또는 다른유지에게경영을인계하지안으면안되게되엿다는데대하야불교측의의견을 종합하면 보성고등보통학교를 폐지하거나 그러치안으면 달은유지에게 인계하고 중앙불교전문학교만은 계속하야 경영하여가자는것이라 한다 즉그리유는 조선불교는현재 아주 쇠퇴하엿슴으로 이것을 부흥식히려면 불교계에 상당한지도자를 양성하는 긔관이필요하다 그럼으로 경비도얼마되지안는 불교전문 학교를그대로 경영하고 보성고보를폐교하거나 달은경영자를차저 넘기자는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달은 방면의 견해를들으면그것은 불교자체만 생각하고 조선교육계의 현상을 중요시하지안는의견이라고 론평되고잇다 불교전문은 소화오년이후 상당히개혁되엇다 하야도 아즉특수한학교로 학생도 불과오륙십명에불과하나 보성고보는 순전한중등학교로서 생도가칠 팔백명의다수일뿐아니라 중등교육 긔관이아주 불충분하고 부족한조선에잇서 지금까지 만은영재(英材)를배출한 혁혁한력사도 잇서 오늘날 조선교육계에서 자못중대한 역할을하고 잇는것도사실이다 물론두학교가 다가치계속하여 잘되여가면 그이상더조흔일은 업겟지만 지금과가치신통한 타개책이업는이상 보성고보를 폐교하고 불교전문을존속한다는불교당국자의 의향은 다시

◇수운에잠긴 불교전문(상) 보성고보(하)

何如間難題
高普存續이必要
學務局某視學官 談

불교측 두학교의 존폐문제에대하야 총독부학무국 모시학관은 다음과가티말하엿다

『글세요그문제는 벌서부터당국에서도 주목하여오든 바인데불교 교무원에서 륙십만원재단법인이라는것은 현재 사실상 거기까지 못가는모양이요당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여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폐지하고 불교전문을 존속식히자는 주장인데 물론불교측의 주장으로는 쇠퇴하야가는 불교를 다시부흥식히려는 생각으로 그와가튼주장을하겟스나 조선교육계를 위하야생각한다면 고등보통학교를 그대로 경영하는것이 조흘것이오 보성고보를 만약 폐지한다면 현재의 륙칠백명의 생도는엇떠케처치하오 물론 다른사람이인계할 생각만잇스면 둘다 두어두는것이 더욱 조흔것이지만하여간어려운문제이요』

經營難은事實 決定된것은업다
敎務院理事 李鍾郁氏 談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리사(理事)인 리종욱(李鍾郁)씨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

두학교가 다경영이 곤난한것은 사실입니다 원래재단의재산 륙십만원중에 처음에내이기로 승락한 삼십사찰중에서 아즉 내이지안코 매년납입하는의무금도 여러해 보내지안는곳도잇습니다 그러나 가튼 불교안에서 골육상쟁(骨肉相爭)식으로 법률적수속을할수도업고 매우곤난함으로 이대가지 대책은강구중입니다 그러나 어느것은폐교하고 어느것은 계속경영한다는것은 전연 결정하지못하엿습니다 우리측에서 가저서는남에게 인계하고십지는 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내려가고하는것가 부동산의 수입만가지고는 경영이 아직곤난하여요

授恩洞에賭博犯五名

시내수은동(授恩洞)일백구십팔번지잡화상리정록(李鼎祿)(三二) 파인선동(仁善洞)팔십사번지시당상최윤긔(崔允基)(四○) 종로(鐘路)삼정목륙십사번지국수장사 곽명영(郭明英)(三二)등 오정목사백륙번지 직업 업는방옥동(朴玉童)(三○)외다섯명이 삼각일 오후구시삼십분경에 인의동(仁義洞)백사십륙번지 리명식(李明植)방에 모히안저서 일원식노름을하다가 순행중의 경관에게 발각되야 방금 취조중이라한다

清涼飲料의新稅
既製品에도課稅
實施는四月부터될듯

세제정리(稅制整理)에의하야청량음료세(清凉飲料稅)가창설된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실시에대하야는 업자에게 미치는영향을염려하야세무당국에서일정이에대한연구를하고잇스나 대체다음과가치 될모양이다 즉청량음료세는 조선산품이면지 이입품이면지 구별치안코 일률로한섬에섬원을과세하는데 이세의 수입은 구변도나평변도가일반으로가튼십일만여원인데 구변도는삼십만륙천원을계상하엿다 이것으로보아 신세는 구변도사월부터 실시할것은 확실하며 이세가고출세(庫出稅)인 관계상 시행당일에 제조업자와이입자의 물품으로 창고에잇는것도 당연히 과세될것이다 그리고 청량음료(『다마라무네』는제외함)의 조선내제조는약일만석이고 이입품은 칠천만석인데파세표준산출의 원가에따라 제조와이입을 다가치 최소한도로예정하고 파세에의한 소비의감소와 미리이입한 물건을실시전에 소매상에게 팔어버릴것등을 고려하야최소한도로계산한것이다

萬榮丸四十船員
救助는遂絕望?
遭難現場엔船影도안보이어
救助船도無爲歸還

체신국삼정(三井)지점통에 드러온 보도를 종합하건대 청진(淸津)압 바다에서 조난당한삼정회사소유발동선만영환(萬榮丸)을수사코자 떠난 북유환(北裕丸)은 이십일 오전령시십분에 현장에 다다라 수사하엿스나 선체를차즐수가 업다하여 이십일오전오시성진(城津)을 떠난청진환(淸津丸)에도 무선전신으로 수사를 명령하엿는데 이배는 이십시간후에야 현장에 도착할예정이다 만영환은 십륙일 오전일곱시반 삼정 물산의 석탄약삼천 칠백돈을 실고 실란(室蘭)을떠나 흥남(興南)으로향하엿든것으로 승조원은 합사십명이라한다 이배는선령(船齡)사십사년이나 된배로 풍랑이상당하엿든모양임으로그들의안부는 매우염려된다한다

【廿日午後三時遞信局入電】 북우환(北祐丸)은수사를단렴하고오권열한지옹기(雄基)로행하엿는데 만영환의 소식은전여꿋치지고말엇다한다

昌城對岸太平哨에
七百餘反滿軍襲來
雙方에數十名의死傷이잇서
長時間接戰하고擊退

【新義州】 관전현제삼구(寬甸縣第三區)지방에근거를둔 반만군(反滿軍)수령 우승무(于勝武)외 의곱두목이 통솔한약칠백명의 반만군은 지난십륙일밤에 평북창성(昌城)대안태평초(太平哨)부근을 습래하야 전화선을끈은후 민가십사호에 방화전소케하는일방 주민십여명을 살해한 사실이잇다는데 이급보를들은 관전현경무국장은 경찰대이백명과 석주자우모장(石柱子牛毛場)에잇는 유격대일백오십명합삼백오십명을 통솔하고 이에응전하야 지난십칠일오후한시부터 동다섯시까지 약네시간동안 격전한결과 경찰대측에 사상자네명과 반만군측에사상자 약이십칠명을내인후 반만군을격퇴하엿다고하며 손해는목하조사중이라한다

鴨江地區와通化에
混成旅隊가出動討伐中

【朝鮮軍司令部發表】 만주국봉천경비군(奉天警備軍)은그동안수차개편(改編)을 하고 또는 일본군의강화를어더반란군의토벌결과가조흔바 겨울동안은 독립하야 토벌도한까닭에 집단적반란군은 권교갓티 횡행하지못하고산간과 기타벽지에 서만출몰한다 그러나압록강지구(鴨綠江地區) 통화(通化)를 중심으로 한지구에는 왕친양(王殿陽)의 호국군과 로장청(老長青)방춘성(方春成) 멸만주(滅滿洲) 대선인(大善人)등의 부하약팔백명과흥안(興安)등지에는 왕봉각(王鳳閣)의부하 약사백명이잇스므로혼성제일려(旅團)와제륙려가토벌중이다

永興郡下에서도 歲拜法을改善

【永興】 구력새해를 맞이하야 동리로인네들을차저환세(還歲)의 문안을드리는것이고래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조선의제도라고 볼수잇는바 영흥군덕흥면구암리(永興郡德興面龜岩里)지방에서는 금년에 이르러호별방문하든 세배법을 개선하는의미로 동리의 남녀로인들을한자리에 모혀안치고 경로연(敬老宴)또는 신년연(新年宴)을베풀러 한자리에서 환세의문안을드리기로 하고새해를 마저동리에다 평장한 회장을정하고이어서 동리의 로부모들을 초청하여재래에 불편하든 점을일소하고세배법개선을하엿다는바압흐로이와가티실행하면조흐리라고한다

長老教平北老會 第四十五回開會

【宣川】 조선송교계에력사가 깁고 이마삼천명이나되는 만흔교도를포옹한 평북로회(平北老會)제사십오회는 십오일오후두시에 선천읍북교회내에서 개회되엿는데 참석원은선교사(宣敎師)이인 목사(牧師)이십륙인, 장로 칠십구인이라하며 금번에 개선된임원은 아래와갓다 한다

會長=白永燁 副會長=朴琛斌 書記=桂孝彥 鄭君一 會計=鄭麟宗 康日鉉

黃海道議員의 選擧違反事件
二十六名書類送局

【海州】 긔보=해주경찰서(海州署)고등계에서는 황해도경찰부고등과(高等課)와협력하야지난일월중순경 황해도의원 김광엽(金光燁)(름)이도의원선거당시에 다액의운동비로 운동원의매수기타 불법행위를 감행한 혐의가 잇슴으로 선거위반(選擧違反)사건의혐의자로 건긔김광엽을 주심으로상당한 사회적지위와 명망을가진실업가(實業家)관공리(官公吏)를 포함한오십여명을 검거취조중이라 함은 본보에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경찰에서는 그취조가 완료되엇슴으로그간범인은 전부 석방하고 선거법위반(選擧法違反)의죄명으로서류만 지난이월 십구일건긔김광엽외 이십오명을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한다

昨年中市內死亡者
一、二九三人
乳兒死亡率이最多

작년중 경성시내에서 사망한자의수효를보면 총수 일천이백구십삼인으로 그속에 남자는륙백륙십이인이고 녀자는 륙백삼십일인이다

다시 년령별로보면 한살이상 두살미만의유아가 제일만어 일백오십명이나되고 그다음은 오십세 이상으로 일백이십구명이며 그다음은 한살미만의유아로 일백이십인이며 이십세이상 삼십오세 미만은 일백십삼인인바 유유아의 사망률이 만흔것은일반이특히주의하여야할일이다

搜查도漠然
警察은몹시焦燥
落着안되는柴商事件

긔보=양주나무장사 지시현(池是鉉)의 시체가 십칠일에발견된후로 이미나흘이나되고 해부(解剖)까지하야 시체는 가족의손으로 넘어갓스나 아직도범인의종적은묘연하다수사본부에서는매일수사의경과보고를한번식종합하야 온갓지혜를 짜내며 물샐틈업는 수사진을 펀내일대에뎌고잇스나 도시 범인의그림자도 뜻지못하는모양으로 매우초조한빗을띠어간다

玄海連絡電話
增線을計劃
遞信局長渡東折衝

현해탄(玄海灘)을련락하는최근에이르러 그수요가 비상히격증하얏스므로 체신국에서는 요전에부산(釜山)하관(下關)사이에『보ー다스』식련락이통과예직지아니한지장을어르컨다는비단에대하야 실선식(實線式)으로 고치여 동화의원활을 괴하얏든바 금년에드러와서 경성과대판(大阪)직통선의 리용은 특히현저히 폭주하야 경성대판과 경성동경(東京)간의 발착(發着)은 하로평균백도(度)에 일백칠십통회에 달하고 가장 만흔날은 일백오십도에 이백이십통회까지 되여이만흔통화를 단한가닥의 건선으로 처리하기에는될젓하나드러갈틈이업고거긔따라이구간의통화는지금통화를하여도별로수업시료금만사실상보통의 삼배가되는 지급통화로가고정화되여 경성중앙전화국 발의동구간신청마는도하루사백원내지오백원의 수입을보이고 잇는터이다 그뿐더러 경성부산간의 회선(回線)중일회선은 전긔대판선으로 전용되고 잇서서조선내 동신간선(幹線)인 경성부산간의 동화에큰지연을 이르커 체신국에서는 리용자의원망한 동화를끄약코자 전문기사를 드려 괴설선(既設線)의 반송식(搬送式)동화도 연구하든바 이실현도 역시불가능하야 엇지하야서라도 실선(實線)의 증설을 도모할밧게 길이업서 방금동경가잇는 정상(井上) 체신국장도 체신성에 이것을 력설하야그실현을괴하리라한다

全州警察署員 吉貴燮檢舉

【錦山】 지난 십칠일에 돌연 전주경찰서(全州警察署)형사대가 당지에출장하야 당지경찰서후원을 바다가지고 금산군부리면평촌리(錦山郡富利面坪村里) 길귀섭(吉貴燮)(三○)의 가택을 수색한후 길귀섭을검속하야 지난십구일 오전집일시차로 전주에 호송하엿다는데 사건내용은 일체 비밀에부하나 들리는바에 의하면 내내전북사건의 관련인듯하다고한다

太平通에行旅屍

십팔일 오후여듧시경에 태평통(太平通)일정목륙십일번지공지에서 로파의시체를 지나가든사람이발견하고 소관본정서(本町署)에보고하야 검시한결과 그는 부산(釜山)출생의 박암건이(朴岩金伊)(?)로서만성로핀중독으로죽은것으로판명되엿다

科學週間

십구일 발명학회(發明學會)와과학조선사(科學朝鮮社)에서는 리사회를 개최하고과학주간(科學週間)안을 결의하엿다는데 이과학주간에는 기행렬(旗行列)을 위시하야 활동사진강연토론회 등을 개최하며견학단등도모집할터이라한다

安義公普校
學級縮少反對
面民一致陳情書提出

【安義】 경남안의공립보통학교는 현재칠학급인바 금년졸업이 이학급이됨에 잇서서 신입학생 모집을 일급으로축소하야 륙학급제를 시행하라는 도당국의 방침에대하야 원대지면(元大知面)은이부일만삼천이넘는 지금에잇서서 매년입학아동지원자 반수이상을 수용치못함에불구하고 현재의 학급까지 축소함은 부당한처단 이라하야 학교당국에잇서서는 학무위원회를 개최하야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일반민간은 이에반대진정을 제출하는등 그처단에자못주목이큰바 도당국의 방침은 알수업스나 의무교육을 제창하야 보통교육을 보급하자는현하조선이니만치 민간의 진정에어그러짐이업슬것을 밋는바이라 한다

孝婦姜氏表彰

【泗川】 지난이월십오일에사천군축동면가산리(租洞面架山里)리민등이 동리방대현(龐大鉉)의자부강씨(姜氏)(三○)의 효부표창식을 거행하엿다는데 건긔 강씨는십칠세때에 시집온이후 구십당년의 시조모와 시부모에게 효행을극진이하야 오든중 소화 륙년도에 시모가등창(背瘡)의악종으로이년동안이나 신음하는중 밤낫시탕과간호에 극진할뿐외라 그의 등창은 종처(瘇處)의 피와고름을입으로빠러나엇스며또그시부가사오년전에난치의 중풍증(中風症)으로 반신불수가되여잇는데가세는극도로빈한하야조석의호구도곤난함에불구하고여기를다서품파리한삭전으로병인의간호비에쓰며 사오년동안에 주소간한번도병인의뜻을거스린바가 업는긔특한행적을리민등이알게되여그와가티표창한것이라한다

鶴翼金鑛强盜被逮

【元山】 함남안변군서곡면학의골산속에잇는 학익금광 사무소에는 십칠일오전 다섯시경에 권총강도가 낫하나 금품을강탈하여가지고 행방을 감추엇든바 이보고를접한 안변서에서는 비상선을느리고 범인수사에 노력하야 드듸여십팔일 오후세시경에원산시내에 잠적한것을 추격하여오던 안변서원이 체포하엿다한다

洪城의三特志

【洪城】 충남홍성에는금번음력 년말을긔하야 일부극빈자에게 약간의백미를 나누어일시적이나마 도음을준 특지가잇섯는바그씨명은다음과갓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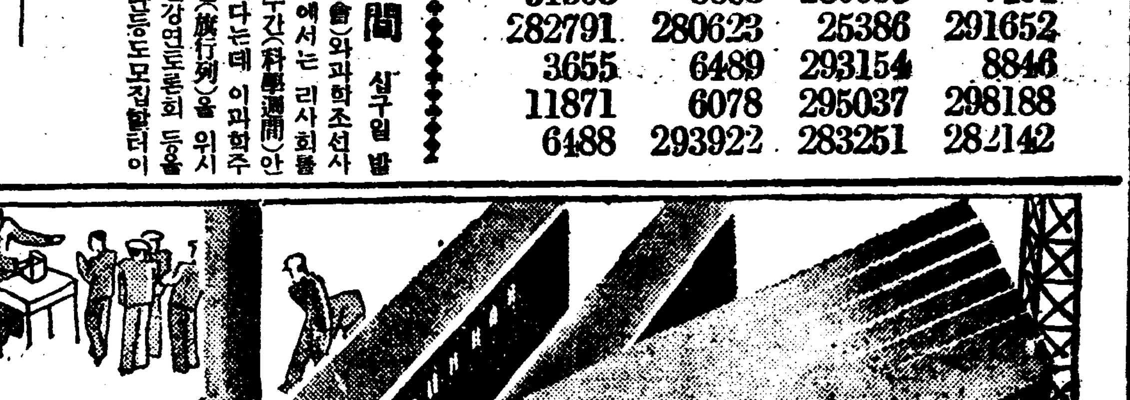
洪城郡洪北面中洞里李㮚世氏 三十七戶에白米一斗五升式
洪城郡洪州面五官里根木宇喜太氏 八十戶에白米一斗式
洪城郡廣川面廣川里佐生源吉氏 五十戶에白米一斗式

現金竊取逃走

【慶北】 경부선소정리대창자전거포(京釜線小井里大昌自轉車舖)에서는 구력그믐날밤에직공림귀봉(林貴鳳)(二○)은자전거포주인 리완긔(李完基)씨가 채무를갑흐랴고 저축하야 두엇든 현금 팔십사원을 절취도주하얏다는데 당지주재경관은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本報愛讀者 甲戌年首 幸運券
當籤番號發表
三等 百人 【第卅一回】

102497	12402	298126	3119
297006	10666	298098	201033
296027	5875	294874	14252
694	289799	124545	102462
283620	28039	658	292423
79838	9201	291504	288438
33876	80729	30698	34447
17500	291939	124555	6103
2893	4121	2047	113700
1075	7248	51692	78213
18767	294497	16012	294792
7944	6552	3118	282790
8285	280932	6535	80406
13267	37500	50789	297784
190152	284249	13021	20452
286374	25923	297723	293980
289240	8180	297238	17244
50582	11493	6381	14032
290321	291573	145943	38121
290806	168909	157010	536
51393	8803	289995	7491
282791	280623	25386	291652
3655	6489	293154	8846
11871	6078	295037	298188
6488	293922	283251	282142


勤勞人의榮養素
일하라! 強健히
肺結核 肋膜 腺病質 夜盲症 虛弱者 의榮養에 第一조타
眼鏡肝油
ヴイタミンD含有量第一
大阪道修町 合資會社 伊藤千太郞商會

一回効散
齒痛 頭痛 에 와 먹으면낫는
神經痛 두통 치통 등에
効能확실

MGM超特作日本版 肉體
石口公開
朝鮮劇場

萬人期待의渴仰篇 二月十九日부터大公開!
巨匠W・S・반다이크氏大作 類猿人다ー산 全十卷
世界的水泳選手존니와이스미유라氏猛獨助演모린오사리반嬢
再映! 滿都관객의眼目은本館에集中되엿다 絶好評!!
M・G・M會社特作全發聲日本版
快走艇 全九卷 월니암헤인스氏主演
豫告 次週朝鮮映畵大會 類猿人다ー산의追從을不許하는猛獸映畵의最高最大金字塔! 不遠封切!
無敵다ー산 水泳界世界的自由型選手바스타ー그라부氏主演 乞期待!
貫鐵洞 電光九五三 優美館

當ル廿日特別大公開
待望三ヶ月滿都に於て未曾有の國民的大名映畫として斯界注視の的となり嚴然たるセンセイションを捲起した問題の國策映畫 第一回超弩級篇!!
內務省、警務局、警視廳、朝鮮社會事業協會御後援 朝鮮社會事業協會御推選
新興キネマ超弩級現代劇
原作 竹田敏彥 監督 內田吐夢入社第一回 主演 小杉勇入社第一回
映畫 警察官 全拾四卷
助演 中野英治、森静子、松本泰輔特別出演 歌川八重子、桂珠子、生方一平 大宮節子(京城出身)助演
竹田敏彥の名作になる非常時問題篇!世界に誇る日本の警察力!國民の生命と財產の保護にその生命を抛つて辛酸努力する警官の職責と血淚滲む人間愛の相克を貫いて描く壯烈悲壯の血氣篇!久ぞ國民必見の映畫國策具體化第一作!
大日本自由映畫社超弩級作 阪東妻三郞プロ撮影所製作
雜誌「ギャング」所載 原作 瀧川 監督 古海卓二
埋藏金三萬兩 全拾卷
阪東妻三郞大熱演 櫻木梅子、嵐寬壽郞、岡田喜久也 堀川浪之助助演
永樂町一 本局二 中央館

生活難이나흔 一日中悲劇兩件

自殺한青年과 棄兒한母性

十八日平壤府內에서

【平壤】 양춘의 따스한 햇은 차저들건만 생활난은 갓칠술를 나 앗기우든 생명을 돌진하는 경자에 더전진벼과 귀중한 자기의 몸을 남의집문전에 버린 녀성이 잇다

×

십팔일 오후팔시 십분경 진남포역을 향하여 질주하든 구백오십륙호 렬차에 서성리(西城里)부근을 질주하든 이십오、륙세 되어보히는 청년이 뛰여들어 자살하엿다 아직 자살청년의 신원은 알수업스나 생활난으로 인한 모양이며 이때문에 륙분간 정차되엿섯다 한다

×

십팔일 오후팔시 삼십분경 평양부내 남산정(南山町) 레배당 정문압헤 버려둔 생후삼개월가량된 계집애를 통행인이 발견하고 평양서에 계출하엿는데 탐두한 강보에 싸혀잇는 것을 보아 생활난에 의한 모양이라 한다

乃侄二兒를 異鄕에다遺棄

생활난으로부터생긴 눈물겨운人生悲劇

【大邱】 생활난에 나온 기아두건ー지난십오일 아츰 열시경 에부내 정거장 조철자동차(朝鐵自動車) 부압헤는 형제간인듯한 어린아이 둘이 치우에 떨면서 울고섯는 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발견하고 자긔집으로 데려다가 보호중인데 조사해본결과 그들은 군위군(軍威郡)에 사는 리순경(李順慶)(三)과 리해숙(李海淑)으로 판명되엿는데 어머니는 어려서 죽고 아버지는 그후로 집을나가지금까지 도라오지안홈으로 리순경이가 길러오든 중이엇든데 극도의 생활난으로 어찌할수가업서서 그날아츰에 권귀조철자동차로 대구에와서 정거장압헤 다버리어든 것인듯하는바 경찰은 범인을 엄탐중이라 한다

簡易學校 設置運動猛烈

下岐川住民蹶起

【下岐川】 함주군 하기천면은 수천공사가 서작됨을 따라 인가상천여호에 매일증가 되여오는바 간이학교(簡易學校)를 설치한다는 회보를 전하고 저간 여러분의 회의적 노력으로 사백여명이 조인한 진정서와 진정원을 관계당국인 도청에 제출하엿다는바 파견하엿다 한다

嬰兒壓殺罪가 十年守節의代償

사십중년과부、이십청년과 치정관계로 아이나어죽여

三陟郡下에서 생긴일

【江陵】 삼척군 원덕면 긔곡리(三陟郡遠德面杞谷里) 손천궁(孫川肯)(四)이란 녀자는 영아압살급 시체유기죄로 강릉검사국을 거처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엿는데 그는 십년전인 설혼한살될때에 자긔남편은 아이네를 남겨두고 병사한뒤 고는 이래 공규를 직혀오든바 작년음력 삼월 그어느날 사랑방에서 삼(麻)을삼고잇는데 그집에서 머슴사리하고잇든 최경문(崔京文)(三)이가 놀다가 아랫목에서 누어자는것을 본 피고는 십여년동안 직혀오든 정렬의 욕망이발동되여 이칠년이나 나이아래인 최경문과 불의관계를 맷게되여 금년일월초순에 남에에 옥가튼 녀자아이를 낫케되자 십년동안이나 지켜온 정절을 일조동시에 세상의치소가 두려워 아이를 강보에 싸서 허、질식케하야 뒷산에 암장한것이라는데 한갓 이상한것은 피고는 그사실을 공정하는데 파무든곳에 잇서야할 영아의 시체는 업다고 한다

人妻不義에憤慨 姦夫를毆打致死

【平壤】 지난십사일오후 열일곱 평남선진지동(平南鎭南浦) 김성국(金成國)=假名=은 일즉 황금정(黃金町) 안권(安全)(三)의 처 리님(李貞?)(二)과 불의관계를 맷고 놀다가 지난십사일 그 현장을 발견하고 분개한 나머지 고자긔의안해 리부선(李福善)과 동리 고판손(高貞俊)과 불의의 관계를맷는 현장을 발견하고 분개한 나머지 고판손을 란타하여 실신되엿스나 그를 참고잇섯다는 사실을 들른 김성국의 친척 리창선(李昌善)은 분개하여 일주일에죽게하엿스며 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서는 대산(大森)검사가 십구일 현장에 급행하여 시체를 해부에부치엇다 한다

十年守節의代償

朝鮮人青年會 創立紀念講演

【安東】 안동현 수양 수십청년회는 작번 이일이 십일임에 창립된이래 자체의수양으로 또는 일반사회적 활동도 가관할정이 만어 안동현 일반동포사이에는 칭찬이 만어 오던중 금이십일일에 만일주년입으로 그 생일날을 의미잇게 긔렴키위하야 창립만 일주년긔렴강연을 개최케되얏는데 연사와 씨명은 아래와갓다 한다

李敦化 蔡東鎬 白寬洙 朱耀燮

砂金鑛崩壞로 鑛夫一名壓死

【全州】 전주군 이서면(全州郡伊西面)에 잇는 우창사금광(玉下鑛區)에서는 지난십칠일에 구가 허무러저 광부한명이 즉사하엿다는데 사망한 광부는 전주군이서면 하관리(全州郡伊西面下觀里) 류상열(劉性烈)(二五)이라고 한다

廿一名卒業生中 上級志願七名

晋州一新女高普에서

【晋州】 진주금정에 잇는 사립 일신녀자고등보통학교의 금춘졸업생은 삼십일명으로 상급학교에 지원자는 사범학교에 김보렴(金寶廉)양 외 한사람 재조학교에 리남금(李南金)양과 기타에 박희권(朴喜權)양 약희권문(業春)에 미복실(朴福實)양 외 세사람이 잇슬뿐이요 기외이십사명은 가사에 종사할예정이라 한다

論山에서 漫談會開催

본사론산지국후원론산옥정국일양회정주최 「論山旭町國一洋靴店主催」신불출씨마다대회(申不出氏漫談大會)를 오난이십일이랑일간 론산옥정론산좌(論山座)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賭博強盜嫌疑로 十數名을檢擧

一名만은檢事局送致

【北倉】 긔보 = 평남맹산군에서는 작년팔월이후 동군천동인두면에 강도두사건이 발생되엿는데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 칠개월동안 경찰은 엄밀한 수사망을 느리고 수사중이든바 금번 울변리정계에서 도박강도(賭博強盜)혐의자로 리영수、손영일、김찬(金瓚)과 리원례、서영우(徐永鎬)、손병일(孫炳一) 리원규(李元奎)등외 십인을 검거취조중이든바 긔귀손병일(孫炳一)은 한창의서 료리를 금무하는 중 김리수(金利)씨의 표창식을 거행하고 긔병 ... 구일덕천경사국으로 넘기게되엿다 한다

洪城社會의話題이든 詐欺賭博團送局

共犯二名指名手配中

【洪城】 긔보 = 충남홍성(忠南洪城)에서는 얼마전 입천오백원의 사긔도박을 하여가지고 자동차로 탐수한 사건이 돌발하자 이것을 알게된 경관대는 또다시 자동차로 범인을 추격한 사실이 잇섯다함은 긔보한바 갓거니와 피해자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青陽郡化城面山亭里) 안종하(安鍾夏) 자신도 한가지 도박을 한관계로 경찰당국에 고발할때에 자긔의 범죄사실을 감추기위하야 사실을 숨기고하지 아니하고 엇더한 광업자(鑛業者)에게 동업하자하여 돈을주엇던바 그대로가지고 도망하여 바렷다고 하엿슴으로 광업가(鑛業家)와 도박자(賭博者)와는 외형부터 천양의 차이가 잇게됨으로 수사대에는 애긴피의자이로 수사에 지장이적지 아니하얏다 한다 그러나 불일후로 활동을 계속한결과 대구(大邱)출신인 김래홍(金來弘)(三)과 박춘석(朴春錫)(三)과 홍성(洪城)의 장상윤(張尙潤)(三) 등의 진범인을 체포취조중 지난십삼일에 일단락을 지여 일건서류와 가티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 검사국(檢事局)에 송치는 하엿스나 공범자 두사람은 아직체포치못하고 각지에 지명수배까지 하엿다 한다

進行中電車에 「택시」正面衝突

平壤箕林里서

【平壤】 십팔일 오후 칠시경 평양부 긔림리칠성문(箕林里七星門) 입구를 진행하든 전차에 「택시」가 정면충돌하엿스나 승객은 다행히 상한사람은 업다 한다

第二回全東滿 氷上競技大會

銀盤의勇士北國의健兒들 勇躍又勇躍空前盛況

【間島】 전동만빙상경기대회는 당지 긔독청년면려회 동만련합회 주최와 본보간도지국후원으로 지난십사일 오전십시부터 룡정시 해란강(海蘭江)어룡우에서 개최되엿다 때마침 음력정초인관계로 룡문교(龍門橋)우에와 해란강상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데 성황을지엇다 출전선수 약삼십여명의 복국의 건아들은 씩씩하게도 건종목을 주파한바 의제 이용사들의 열과 땀으로 주파한 긔록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青年部得點順

第一位 金益南 第二位 朴龍成
第三位 崔亨俊 第四位 池昌國
第五位 鄭台彬 第六位 金金喆

◇少年部得點順

第一位 崔永七 第二位 김용준
第三位 권희송 第四位 강용만
第五位 리동신 第六位 최덕영

◇青年部入賞順

五百米 (1)金益南 (2)崔亨俊 (3)池昌國
千五百米 (1)金益南 (2)金金喆 (3)崔亨俊
五千米 (1)朴龍成 (2)金益南 (3)鄭台彬
一萬米 (1)朴龍成 (2)池昌國 (3)鄭台彬

◇少年部入賞者順

二百五十米 (1)권희송 (2)김용만 (3)김봉용
五百米 (1)최영칠 (2)김용준 (3)리동신
一千米 (1)최영칠 (2)김용준 (3)최덕영

擲柶大會

◇……【韓山】 본보한산지국 주최와 유지일동의 후원으로 오는 이십팔일오후한시부터 당지 시장내에서 전한산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엿는데 벌서부터 일반의 인긔를 끄으는 만큼 당일의 성황을 예긔한다고 한다

◇……【廣豊】 긔보 = 경부선 소정리(京釜線小井里)에 잇는 본보 광풍분국(本報廣豊分局)주최인 척사대회는 그간 구연말 경계가 분망하다는 리유로 연긔되엿든바 금월 이십사일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엿다 한다

◇……【平澤】 구정월의 적막함을 깨트리기위하야 오는 이월이십사일을 긔하야 조선중앙일보주최와 본보평택지국후원으로 평택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여방금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地方人事

▲崔英煥氏(佛教青總 中央執行委員長) 今般昆陽多率寺主持就任人事次 本報昆陽分局來訪
▲金九鉉氏(本社朝寧支局長)十九日來社
▲金澤洞氏(全興運送店代表)本回鼓谷全興運送店新設人事次 十九日本報鼓谷分局來訪
▲黑木秀朗氏(鳥致院驛長) 十九日管內各驛巡視

◇取消申告 貴社發行의新聞記事를取消하옵니다 昭和九年十七日附 貴日報第二面記事中題目「赤田面史、公金을橫領」云云의事實은 相違되오니 貴日報에 取消하야주심을希望 昭和九年二月十九日 赤田面長 [illegible]

朝鮮日報社貴中

平澤	河陽	小井里
中部朝鮮擲柶大會	新春懸賞擲柶大會	南朝鮮擲柶大會
◇日時 二月二十四日陰(正月十一日)午後早 ◇場所 平澤驛前 朝日館	◇日時 陰正月十五日午前十時 ◇場所 琴一旅館	◇時日 陰正月十一日 ◇場所 京釜線小井里
◇主催 朝鮮中央日報平澤支局 ◇後援 本報平澤支局	◇主催 朝鮮日報社河陽分局 ◇後援 金盛商店 朴允佑商店 濟衆醫院 永陽商店 慶東自轉車商會	◇主催 朝鮮日報社廣豊分局 ◇後援 崔炳學精米所 三成木工場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 【四十九】

李巴村 作
熊超 畫

절교 (七)

그날ㅅ밤ー
은혜의 집을차저온 사람은 정순이엿다
은혜는 자기의 압헤나갈길을 내다보면서 이생각저생각 하면서 우둑허니 안젓스랴니 정순이가와서 차젓다
「정순이 왓서!」
하고 은혜는 반갑게마즈랴고 손을내밀면서 나갓스나 정순은 새침한채 입을꼭다물고 아모말도하지안엇다
「왜 그러케 수심을띄워?」
어듸몸이 괴로워?」
하고 재처물엇스나 역시 정순은 아모말도하지안엇다
정순은 은혜압헤 우둑허니 안젓다가 무슨 결심이나한듯이 입술을 꾸럭뜨드며
「언니!」
하고 쏘앗다
「언니는 왜 그러케 못된짓을하면서 뎅겨!」
「못된짓이라니?」
하고 은혜는 어안이벙벙해서 정순을처다보앗다
「언니는 웨생도들을 뒤로조종하면서 나를미워해?」
「응? 무슨말이야?」
「이건 남의말을 뭇소? 먹소?」
하면서 정순은 서슬이 푸르레서 눈을똑바로떳다、
「안이、내가 웨생도를 조종해!」
「말말어요、누가 몰으는줄알고、그러치안으면 웨그런일이생기자 화교를사직하느냐 말야」
「호호호 정순이가 너무 영리해서!」
하면서 은혜는 정순의 얼게 어주는게 조아」
은혜는 진정으로말햇스나 이소리가 정순이 귀에는 몹시 거슬렷다。정순이도 나와갓치 나오는 날이 잇슬줄알다는 소리는 밀정 뒤에서 또다시 생도들을 조종해서 소동할려니 그러케알라는 위혁갓햇다。
「그럼 또 생도들의뒤를 떠받들면서 일을 이르킬작정이요?」
「그럼 정순이는 내가 사직한리유를 어린애들 동회식으로들어야겟소?」
「다 듯기실혀요 성은해가누구며 민정순이가누구야 난 오늘부터 은혜하고는 절교야!」
하면서 정순은 손끗과 입술을 파르르떨엇다。
「아조 모르는사람이돼 길에서만나도 모르는척해!」
「정순이 이거너무 신경과민이야 좀 침착하고 내말을 들어!」
은혜는 정순이의손목을잡으려고햇스나 정순은 인제는너와나와 이야기할필요도업다는듯이 은혜의팔을 뿌리치고문밧그로나가버렷다。
「넘겨집다가 끈두바질할라」
은혜는 유쾌하게 웃는다。
「그러케 생각하는것은 정순이의 지각업는일이야 내가 나온리유는 아직까지 정순이가알기 일렴。내가 말하드레도 정순이는 압어채리지못할게야。그러나 정순이는 모르는사이에 내가나온리유를 알게야、또 정순이도 나모양으로 나오는날이 잇스리라고밋어、그날까지 정순이는 나를 수수꺼기로 알 팔닥 쳐다。

婦人公論

花の三月号 『娘の青春と母』 本日発売

★春風の快よさを以て貴女の頬を撫でる、貴女の美と幸福への道はこの一冊に!!

雪の淺間に友の姿を求めて ……中村テル

山を愛する輝けるその瞳を見よ。山の靈氣のゆゑに今日も亦人は山を登る。友は山に召されようとも山を愛す。友は山に眠る。

初めて知る父 井上日召を思ふ ……横地正次郎

一人一殺主義のテロ行動により政治家や財界の耳目を聳動せしめた血盟團の盟主井上日召の若き日の戀とその獄の子。

若い娘を持つ従妹へ ……小林盛
□國團の人・日召を父と呼ぶ子……野上瀰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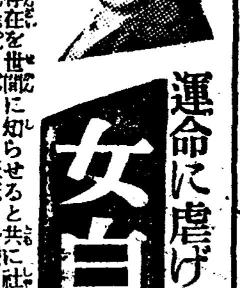
娘の青春と母の座談會
○娘の日常生活について ○母の普段の心がけ ○娘の縁談と母の立場 ○戀愛に對する娘と母 ○娘は母に何を要求するか ○母は娘に何を求めるか

世界女性評傳 グレゴリ夫人 ……山本修二

姉『不如歸』の浪子を語る 実妹某子爵母堂

川崎弘子さんとの結婚について ……福田蘭童
銀幕に咲く花をめぐる愛の苦惱は遂に一人の女性に苦杯を仰がせるに至つた、その事實・その眞相!

養子・養母・實母の問題
亡き義母・亡き兄の靈に捧ぐ……六世 中村福助
福助の生みの母としての言葉……鈴木りん
女學校を卒業する友に
△試験で勞れた愛兒のための 榮養料理……白井鶴子
△春の一品料理……諸家
和裝 山野千枝子
洋裝 吉行あぐり



運命に虐げられた女はかく叫ぶ
女白浪と云はれて 桂木八千代
私といふものゝ存在を世間に知らせると共に社會から葬つてくれた新聞記者に對して、私は最も親しみ深い婦人公論を通じてお前達の紙上にのせる記事の出鱈目さを世間に知らせてやる!

□婦人病の新しい水治療法……醫學博士 朝岡稲太郎
□結核病患者は結婚出來ないか……醫學博士 唐澤杉三
□青春何故に悩み多きか……醫學博士 杉田直樹
△昨日の流行と明日の流行(洋裝講座)……伊東茂平
△私のふだんとよそゆき……(林芙美子・鳩山薫子・嘉治瑠璃子)
▲伊太利に在りし日……原信子

コント集・春の夜の夢
○春の夢……北村小松
○ことば……菊池信一郎
○鬪の花と黒ン坊の兵士……加東まさ子
○積薬のシーツ……瀬谷閑子
○ハナ子の身上相談……秋田實
○もし心臓を捕へることが出來たら……小栗虫太郎

人相鏡獨占ひ 観水学人

口繪
伸び行く満洲國
溥傑 満洲國皇帝御舍弟
潤麒 満洲國皇帝御妹婿
醇親王 満洲國皇帝御親父
恭親王
平野零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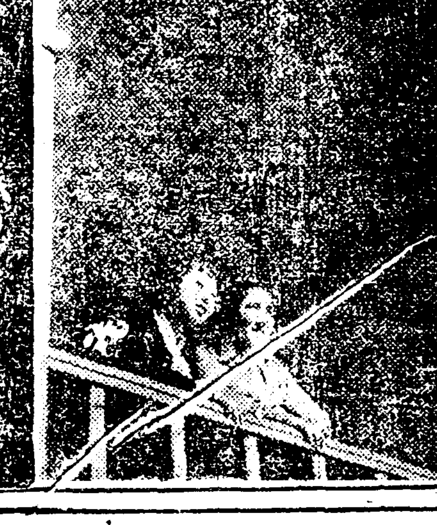
特別所得税と女中税……阿部温知
★近頃の女學生……岡倉由三郎
京洛日記……室生犀星
平價切下げとは何か……小汀利得
交際の心得……鶴見祐輔
世界の動き……清澤洌
恐妻人情話……平山蘆江
女性時評……山川菊栄
人形まつり
職業婦人の春のスタイル・ブック
我が家の子守唄
文豪詩碑めぐり等等

◇全女性絶讃の名作◇
樹氷……大佛次郎
黄菊白菊……細田民樹
春の逃げ水……吉田絃二郎
黒い虹……大下宇陀兒
道中女仁義……長谷川伸
ラグーザお玉……清原玉女
マカナイ夫人……小野賢一郎
青春音頭……サトウ・ハチロー
憎しみの坩堝……藤澤桓夫

中央公論社 東京·驛前 丸ビル五階 振替東京三四番

職業婦人になるための 學校案内
よき未來のためによき學校を選びませう
○音樂家 ○助産婦 ○圖案家 ○洋裁家 ○齒科醫 ○美容家 ○女醫 ○タイピスト ○藥劑師 ○速記者 ○看護婦
定價五〇錢

國際的花嫁 エチオピヤに嫁ぐ私 黒田雅子



人生は四十から
人類初まつて以來の大福音。我々は人生をもう一度やり直す事が出來るのだ。さあ萬事これからだ!!
若返りの心化粧
眩しくて御光が射すやうな化粧は心へするもの。女性四十戀なきを嘆く勿れ。本當の美はこれから一生かかつて磨き出すものなのだ
四六判 三九〇頁 定價一·〇〇 送料〇·一〇
中央公論社出版部

WAKAMOTO'S
國際
營養
わかもと
世界を風靡せる
ヘーアエ療法
慢性胃腸疾患
胃酸過多症、常習便秘等의機能異常障碍를恢復함
常習便秘와下痢
酵素를活性化
는 消化酵素를 活性化하는 性狀을 有하고 이 物質이 同時에 體內諸酵素의 活性化에도 參與하는것이라고
機能의覺醒作用
結核疾患
食欲不振、發熱、下痢等의原因되는結核菌毒素를緩解함
中樞를刺戟함
憂慮할副作用
는白血球增殖作用과구리코ー겐에依하는肝臟解毒作用의亢進에歸할것이다。
此事實에對하야或은구루다지옹의效果를說하고或은리빠제酵素의脂肪代謝作用을主張하는者도잇스나、結局은헤 맥中에 되는누구레인酸에依하
菌毒素를中和
流感·肺炎의豫防
急性細菌性疾患의感染을豫防하고、經過를短縮함
獨逸부레스로
麻疹、猩紅熱、丹毒에헤 맥의治療效果는또한크다。라루지에ー루氏는急性及慢性氣管支가다루에對하야헤 맥의效果를賞하고、에스고루쓰에루氏連鎖狀球菌葡萄狀球菌에對한헤 맥의效果를擧하얏다。
喰菌作用을增大
純抽出로成功
藥價至廉
三十日量 一圓六十錢
二七〇瓦 四、五〇　五四〇瓦 八、五〇
東京市芝公園大門內際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 電話代表芝二七五九・外六本
發賣元 三井物產株式會社
海外代理店 安東縣、大連、奉天、新京、吉林、天津、上海、青島、漢口、香港、廣東、台北、シドニー、メルボルン、シンガポール、マニラ、スラバヤ、バタビヤ、バンコック、ラングーン、倫敦、紐育、カルカッタ、桑港、シャトル
わかもと
WAKAMOTO